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5. 3. 18.(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 의안 검토보고서

## 검토안건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 「금산군-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5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5. 3. 6.
- 회 부 일 : 2025. 3. 6.

## 2. 제안이유

-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의 한국 전쟁 참전을 시작으로 ‘형제의 나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4년 9월 튀르키예 탈라스구와 국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위한 우호협약 체결
- 탈라스구는 우호교류 협정관계를 넘어 자매도시로서 격을 높여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작년 우호교류 협약 이후 적극적으로 자매도시 협정 체결 의지를 표명하며 의회 승인 절차를 추진
- 금번 자매도시 협정 체결로 진일보된 양도시간 국제협력의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경제, 농업, 문화(축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교류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자매도시 체결일 : 2025년 상반기 / 금산삼계탕축제 초청 예정

○ 협정 주요내용

- 양 도시는 친선과 공동번영 도모를 위하여 행정·사회·경제·문화·교육·보건·체육·환경·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
- 상대 도시의 유·무형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는 활동에 협력

○ 그동안 추진현황

- 튀르키예 탈라스구 방문 및 「우호도시 협력 양해 각서」 체결 : 24.09.27.
- 튀르키예 탈라스구 자매도시 승인 절차 이행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난 2024년 9월 튀르키예 탈라스구와의 ‘우호도시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행정·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도시 체결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자매도시’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도시를 말하는 것으로서,

- 금산군의 지금까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로는 먼저 자매결연 체결 도시로 1995년 중국 연변주 안도현, 2014년 베트남 벤째성 벤째시 등 2개소가 있으며, 우호협력 체결 도시로는 2006년 중국 칭다오시 등 4개 도시, 2023년 필리핀 포락시 등 4개 도시, 2013년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 2015년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2018년 키르기스스탄 이식쿨주, 2024년 베트남 라이쩌우성, 2024년 튀르키예 탈라스구, 2024년 몽골 다르항올도 등 총 8개국 14개 도시와 우호 협력을 맺고 있음.
-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튀르키예 탈라스구는 지리적 특성으로는 튀르키예 중부에 위치하며 금산군 면적의 약 75%의 면적이고, 인구는 17만명 정도로 금산군 인구의 3.5배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이며, 산업 구조는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농업이 발달하였고, 인근에 산업 허브인 카이세리시와 경전철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카이세리 공단에 다수의 주민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분야로는 탈라스 국제문화예술축제, 탈라스 히드렐레스축제, 탈라스 전통공예품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 자매결연 체결 시 인근 상업 도시인 카이세리시를 통한 인삼 수출과 금산세계인삼축제와 튀르키예 축제를 연계한 문화·관광 교류가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1995년부터 시작된 기존 16개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상황

을 비추어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휴 시에는 자매결연 대상 도시의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검토와, 산업·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검토, 교류를 통한 실익 기대성 검토,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총괄적 교류의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 또한 탈라스구와의 사전에 충분한 교류가 부족해 보이고, 금산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협의체인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내부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양쪽 도시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행정·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자매결연 체결에는 행정력과 재정력 투입이 수반되고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책임성과 신뢰가 뒤따르는 중대한 결정임을 감안하면, 유명무실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자매결연이 되지 않도록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밀도있게 살피서 자매결연 추진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